

“계율 지키며 선한마음 갖고 수행해야”

광주 연화사, 미안마 삼장법사 초청법회

“붓당 사라낭 갖자-미, 답망 사라낭 갖자-미, 상강 사라낭 갖자-미”

세계 불교계 최고 삼장법사가 한국에서 법을 펼쳤다. 광주 연화사(주지 명신)는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와 공동으로 5월 31일 대웅전에서 미안마 삼장법사인 우 간 하마라 라카라 스님을 초청해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삼장법사란 빨리어로 된 부처의 가르침인 경(經)·율(律)·논(論) 삼장공부를 완료한 스님으로, 미안마를 비롯한 세계불교계에서 가장 추앙받는 분의 하나이다. 현재 미안마에서 삼장시험을 통과한 스님은 역대 13명밖에 배출되지 않아, 삼장법사는 미안마 국민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행사에는 붓다라카타 스님(보리수 선원), 위세이따 스님(지따수카 선원), 명신 스님, 지각 스님(동원사 주지), 일평 스님(금선사 주지), 이화영 이사장을 비롯해 400여 신도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위세이따 스님의 통역으로 붓다라카타 스님의 인레로 삼귀의와 오계에 대한 강연과 수계의식이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평소 광주지역에서 많은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붓다라카타 스님이 광주지역 불자들을 위해 마련한 법회이다. 행사는 진건식에 이어 미안마 양식의 불교예례, 삼장법사에 대한 헌공의식, 수계의식, 법문으로 진행됐다.

특히 헌공의식에는 미안마 의식에 따라 참가한 스님과 대중들이 삼장법사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을 진행해 이채로웠다. 우 간하마라 라카라 스님은 법문에서 “사람의 마음은 선한마음과 불순한 두 마음을 갖고 있지만 수행을 할때는 선한마음



광주 연화사는 5월 31일 미안마 삼장법사 우 간 하마라 라카라 스님을 초청해 수계법회를 봉했다. 사진은 신도들이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다.

을 통해 매진해야 한다”며 “선한마음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안마의 전통의식에 처음 참여한 김순례(58) 씨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세

심한 관심을 갖고 수행하시는 모습이 좋았다. 특히 계율에 대한 엄격한 마음가짐과 실천을 하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이 한국불교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소식

금산사 화림선원 백옥불 봉불식 등 개최

임진왜란 당시 뇌목처영 대사의 승병 본거지로 활용돼 정유재란 당시 소실됐던 김제 금산사 화림선원이 복원돼, 6월 4일 백옥불 봉불식 및 헌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해 도영 스님, 원행 스님 등 17교구 분발사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은 “화림선원의 복원과 함께 나라가 부강하고 도정이 날로 발전하고 도덕이 성

취되는 한편 세계가 평화롭고 눈푸른 날자들이 수행 정진할 수 있는 선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영 스님도 백옥불 봉불 축원에서 “이 지역 불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모악산 금산사를 전법과 포교, 교육, 사회복지의 중심도량으로 열심히 가꾸어 나가고자 하니 이 도량에서 역대조사님들의 승풍이 되살아 날수 있도록 가피하여 달라”고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일불선교종 새임원진 선출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총무원장 경원)은 5월 30일 인수동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44차 임시중앙총회를 열고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9대 총무원장에 경원스님을 비롯 중앙총회의장 법선, 호계원장 법성, 교육원장 법해, 포교원장 도안, 감사원장 석성, 선거관리위원장 동철, 총무원부원장 용운 스님을 신임 임원으로 선출했다.



전북 남원여고를 비롯한 10여 학교의 40여 청소년들이 생명농사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모심기 체험을 하고 있다.

슬로우푸드의 정신을 배우자

청소년 생명평화연대 '생명평화 모심기' 개최

전북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모심기’를 전북 전주시 중인동에서 열었다.

“생명의 모를 심어 평화의 쌀을 키우자”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전북 남원여고 등 10여 학교의 청소년 40여 명이 동참했다.

대부분 처음 모심기에 동참한 청소년들은 약 500평의 논에 직접 모를 심고, 가을 수확시까지 꾸준하게 자신들이 심은 모를 관리 수확한다.

오종근 생명평화실천단 단장은 “생명평화실천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다”며 “로컬푸드

드, 슬로우푸드 등의 정신과 친환경농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생명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생명평화 실천단 관계자는 이번 모심기를 계기로 생명평화 정신과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참여자 스스로 모금과 쌀 모으기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가을에 추수한 쌀과 함께 북한 동포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학생들 이음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동참한 정지영(남원여고·17) 양은 “모심기를 통해 쌀 한 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는 말을 실감했다”며 “앞으로 밥을 남기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반야불교문화연구원 개원기념 학술대회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사진)이 6월 3일 개원기념으로 통도사 반야암에서 ‘다문화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과 반야암 주지 지안 스님을 비롯해 20여 영남권 대학교수와 1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반야암 주지 지안 스님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국불교에 있어서 가장 약점은 불교학자가 적다는 것이다. 한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라불교처럼 교학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연구원의 설립이 교

학을 더 넓히고, 불교를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올 3월에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불교문화창달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술대회는 >부산대 김준호 교수의 ‘다문화 담론과 불교정신’ >동아대 윤종갑 교수의 ‘원융무애와 불교 다문화’ >동국대 김선일 교수의 ‘다문화 가정의 실태와 불교적 대안’ >대구교육대 김영필 교수의 ‘한국의 다문화 교육과 불교’ 등이 발표됐으며, 임승택(경북대), 조수동(대구한의대), 도재 스님(마하이 주민주원센터), 명법 스님(서울대), 명오 스님(동국대 박사과정)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홍법사, 현충일 맞아 나라사랑 실천

현충일을 맞아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제22회 홍법바라말제와 제2회 호국승결대회를 개최했다.

1부 행사인 홍법바라말제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천도제가 봉행됐다. 이어 2부 호국승결대회에서는 초·중·고 1300여 학생들이 참여해 그림, 글짓기, 서예 부문을 겨루는 행사가 진행됐다.

심산 스님은 “우리는 개인만을 위한 삶

만 강조될 뿐, 사회와 국가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미래의 인재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국승결대회 시상식은 15개 종목별로 총 168명에게 수여되며, 시상식은 6월 23일 부산시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진해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연주 및 의장대 시범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구암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법회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의 법패 및 장엄부문 예능보유자 구암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법회가 6월 4일 백양산 백화원 관음사에서 열렸다.

행사는 (사)부산영산재보존회 회원들의 바라춤과 작법무의 화려한 영산재로 봉행됐으며 해인종 종정 혜지 스님, 일불선교종 종정 정각 스님을 비롯한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자인 스님과 법산 스님, 사상구 연합회 회장 경강 스님, 前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등이 참석했다. 법화종 총무원장 해륜 스님은 “대종사의 영산재에 대한 큰 뜻을 열과 성을 다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전국 청소년 무일문학상 백일장 열려



전국 청소년 무일문학상 백일장에 참가한 학생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부설 무일학원이 주최한 ‘전국 청소년 무일문학상 백일장’이 6월 3일 경북 청도 ‘참좋은이서 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 개최된 ‘무일문학상 백일장’은 올해부터 전국 단위 청소년 백일장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와 경북지역의 중·고교생 500여 명이 ‘인연, 길, 계절의 순환, 개인과 국가’를 주제로 평소 갖고 있던 글 솜씨를 겨뤘다. 한편 이날 백일장에서는 중학생 13명, 고학생 15명을 선발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도모집

종정 명진 석법운
원로위원 석보운 석월현 석해동 석법등 석성우 석월산

귀의삼보 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중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으로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역대 선지식들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문화를 불교에서 찾아내어 역사와 민족성에 제시하고 함께 실천 지도하여 왔습니다.

원효대사는 화쟁사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병폐를 치유했으며 보조 지눌선사는 고려불교의 사치와 호화를 경계하여 선교의 수행 실천으로 후학을 지도하였고, 서산대사는 선사상 등 여럿이 있지만 사명대사에 이어져 호국불교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불교로 민중을 지도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 종단 역시 깊은 뜻을 받들어 전통 불교의식의 이념전파 및 범음범패를 현재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누구에게나 열린 종단,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선수행을 통해 양질의 승려와 불자를 양성하는 교육종단, 일체의 사됨도 배제하고 정법수호에 앞장서는 개혁종단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세계화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 조계종 종단과 함께하길 제방의 청정승가와 불심 깊은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 총무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 3층
-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악목면 복성 1리 1095 동명사
전화 054)974-2605. 011-544-2605 / 팩스 054)974-5789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2년도 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옥, 응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나.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법운 스님, 월봉 스님

2. 수업일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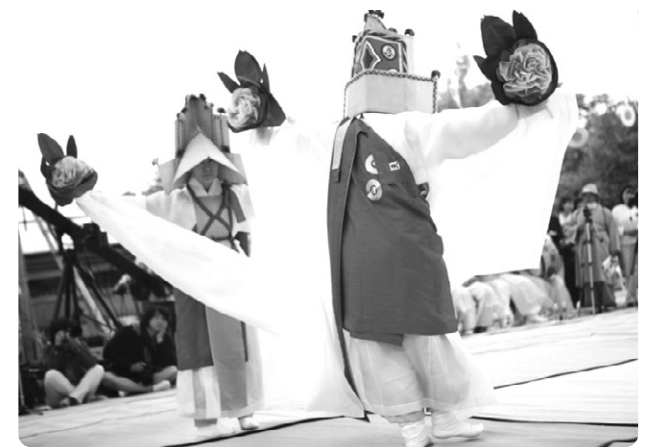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자혜불교대학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